

# LOCAL

2025년 4월 1일 화요일

## 나주, 중소기업 기술개발·판로 개척 총력

### 신안, 철새 먹이 경작 보상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

신안군은 철새 주요 이동경로이자 중간 기착지인 흑산면에 철새 먹이를 경작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4월 11일까지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란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서 토지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생태계서비스(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를 유지하거나 증진하는 활동을 하면 그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안군은 지난 2017년부터 철새와 서식지 보전, 마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민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지역인 흑산도는 봄과 가을철에 동아시아를 이동하는 다양한 철새의 중간 기착지로, 매년 250종 이상의 철새들이 휴식지로 이용하는 중요한 지역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철새 먹이인 조(서숙)와 수수를 직접 친환경으로 재배해 수확하지 않고 철새에게 먹이와 휴식지를 제공해 생물다양성 증진에 앞장서는데 기여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흑산면 소재 철새박물관에 오는 1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현장 실사를 거쳐 6월부터 경작을 시작할 예정이다. 경작 가능한 토지를 소유하였거나 소유주에게 사용 승낙을 받은 주민은 가구당 최대 1000㎡까 지 신청할 수 있다. 신안=이훈기 기자

### 전남 최초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 컨설팅 지원 올해 6개 업체 선정...경쟁력 강화·경영 활력

나주시가 전남 지자체 최초로 지역 중소기업 생산품 판로 개척을 위해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 컨설팅을 지원한다.

31일 나주시에 따르면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기술과 품질 등을 평가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한다.

우수조달물품으로 등록되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으로 지정되고 나라장터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해지는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 또는 국내외 다양한 판로 개척이 가능해진다.

평가는 통상적으로 1년에 4차례 진행되는데 2024년도 4회차 평가에선 기업 360곳 중 약 18%인 63곳만 선정될 정도로 합격 문턱이 높다. 이에 시는 우수조달물품 등록을 위한 중소기업 자체 역량 한계를 보완하고자 올해부터 전남 지자체 중 최초로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록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나주 혁신산단 전경

지원 대상은 나주시 분사·지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기업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

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6개사로 4월 2일까지

전남테크노파크 기업 혁신성장 플랫폼 누리집(data.jntp.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록 합격률 향상을 위해 전남테크노파크와 협약해 중소기업과 컨설팅사 매칭을 도모한다.

윤병태 시장은 "우수조달물품 컨설팅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공공 판로 확보와 제품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올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연장 지정에 따라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등 계약 우대 혜택을 통한 기업 경영에 활력을 더해갈 것이다"고 말했다.

나주=조환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해남군은 최근 친환경 농업인과 신활력 사업 액션그룹 공동체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활력플러스 혁신파크 개소식을 가졌다.

### 해남 신활력플러스 혁신파크 개소

#### 친환경 유기농업 생산·가공 등 플랫폼 구축

해남군이 지속가능한 농촌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했다.

31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친환경 농업인과 신활력 사업 액션그룹 공동체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활력플러스 혁신파크 개소식을 가졌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농촌에 구축된 지역 자산과 다양한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잠재력을 발굴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사

업이다. 청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사회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해남군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는 폐교된 황산고등학교를 리모델링해 조성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활력플러스 혁신파크 개소식을 가졌다.

혁신파크 내에는 유기농공공방과 사무실, 밀키트공방, 스튜디오실 등 혁신파크 분관, 생대순환센터(우모장) 등이 들어섰다.

해남=성정수 기자 sj82239@

###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장학생 150명 선발 예정

(재)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는 최근 군청 상환실에서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24년 장학금 운영 결산과 2025년 장학생 선발안 등을 심의했다. 올해 장학재단은 총 262명의 신청서를 접수했다.

엄격한 심의과정을 거쳐 대학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성적우수 대학생 장학금, 문주장학금, 장흥중·고등학교 성적우수 장학금, 지역 고등학교 진학 성적우수 장학금, 저소득자녀 고등학교 장학금, 특별격려 장학생 7개 분야에서 총 150명을 선발해 2억384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학증서 수여식은 4월 중에 추진될 예정이며, 수여식이 끝난 이후 장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된다.

장흥=정영수 기자 jms050311@

## 순천, 환경·교통 문제 대안 자전거 활성화

### 6일 '자전거의 날' 행사...자전거문화센터~화포 17km 구간

순천시는 4월 6일 순천시 자전거문화센터와 동천면 일원에서 '2025년 순천시 자전거의 날 행사'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교통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제정한 날(매년 4월 22일)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된다.

기념행사는 오전 9시30분부터 순천시 자전거연맹과 함께 개최식을 시작으로,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와 대자보(대중 교통·자전거·보행환경) 이용 캠페인 및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사전·현장 참가 접수자를 대상으로 순천시의 아름다운 자연을 달려라 자전거

거 친화도시의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자전거 단체라이딩이 진행된다. 라이딩 코스는 자전거문화센터를 출발해 동천, 순천만, 화포까지 총 17km 구간이다.

부대행사로 시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자전거 중고장터 및 수리센터 운영, 자전거 관련 퀴즈 이벤트인 '따르릉 골든벨'을 진행한다.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자전거 발전기 비눗방울 만들기, 자전거 모양 타투체험, 미니 자전거 공예, 양말목 키링 만들기, 나만의 컵 만들기 등도 함께 운영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자



전거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건강뿐만 아니라 대자보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년 순천시 자전거의 날' 행사는 자전거를 사랑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라이딩 및 따르릉 골든벨 사전참가 등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 교통정책과(061-749-6201)로 문의하거나 순천시청 누리집(www.su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66pk@gwangnam.co.kr

##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서 혁신기술 개발

### 67억 규모 다부처패키지 3건 선정...K-FARM 모델 구축

고흥군은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총 사업비 67억원 규모의 2025년도 스마트팜 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3건이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3건의 공모사업은 스마트 온실의 빅데이터 인공지능 통합관리용 플랫폼 상용화, 스마트 온실의 경영관리를 위한 지능형 종합생산 및 안전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 태양광 전원을 이용한 인공광 에너지 공급시스템 개발 및 실증으로 2027년까지 고흥 혁신밸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스마트 온실의 빅데이터 인공지능 통합관리용 플랫폼 상용화'는 순천대·GSBIZ·고흥군이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고 과제류 데이터 결합·분석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탑재한 '스마트팜 빅데이터 인공지능 통합관리용 플랫폼'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사업으로 국비 14억원이 투입된다.

또 '스마트 온실의 경영관리를 위한 지능형 종합생산 및 안전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는 그린씨에스, 파모스, 전남테크노파크 등이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해 스마트온실 내 작업자 인력을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작물 재배관리 상황을 확인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종합생산 및 안전 통합관리시스템'을 상용화하는 사업으로 국비 14억원이 지원된다.

공영민 군수는 "앞으로도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스마트팜 혁신기술개발 사업이 많이 진행돼 고흥에서 대한민국 K-FARM 모델이 완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 건강검진

##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